

계란값 4년만에 최고치...서민 부담 늘었다

5월 산지 가격 전년대비 12.2% '경중'
정부·농가, 원인공방 속 8월까지 강세 전망
전달 특란 한판 평균 소비자가 7천26원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계란 가격이 오는 8월까지 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8일 '농업관측 6월호' 보고서를 통해 오는 8월까지 석 달간 예측값을 발표하면서 이달 계란 산지 가격이 특란 10개에 1천850원~1천950원으로 1년 전보다 12.4~18.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인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9.9~15.8% 높은 것이다. 농경연은 계란 산지 가격 강세 원인으로 산란계 고령화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염성 기관지염(IB), 가금티푸스 등 질병 발생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꼽았다. 농경연은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소비 감소로 산지 특란 10개 가격이 1천750~1천850원으로 이 달보다는 낮지만 작년 7월과 비교하면 7.6~13.8%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이는 작년 8월보다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농업관측 6월호' 보고서를 통해 오는 8월까지 석 달간 예측값을 발표하면서 이달 계란 산지 가격이 특란 10개에 1천850~1천950원으로 1년 전보다 12.4~18.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82~144% 비싼 수준이다.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만 해도 1년 전과 비슷했으나 4월과 지난달에는 특란 10개 기준으로 1천773원과 1천888원으로 각각 102%, 122% 올랐다. 이 같은 가격 상승에 농립축산식품부와 대한산란계협회는 가격 상승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농립축산식품부는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말부터 다수 농가에서 환경기 전염성 기관지염 등 소모성 질병 발생으로 계란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4~6%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산란계협회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계란 산지 가격을 한 개에 146원에서 190원까

지 약 30% 인상 고시했고 이후 계란 도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란계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은 정부 규제와 소매점의 폭리로 촉발됐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산란계 마리당 사육 면적 최소 기준이 0.05

m에서 0.075m로 50% 확대되면서 사육할 수 있는 산란계 마릿수가 줄고 계란 생산은 감소해 가격은 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란 산지 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자 가격도 오를세다.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천36원으로 지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천원을 넘었으며 이는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60%, 42%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계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지역 제과업체도 비상이다. 특히 신선식품인 만큼 유통기한이 짧아 대량 비축도 불가능하다. 지역 대표 빵집 베비에르 관계자는 "동네 빵집의 경우 계란 가격 인상에 가격을 올렸다가 내렸다 할 수 있지만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서는 그러기 쉽지 않다"며 "현재 달걀 가격 인상에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빵 가격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달 광주·전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의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유독 먹거리 물가만은 3% 이상을 기록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태호 기자

aT, 방콕서 한국식품산업 경쟁력 입증

농식품부와 태국 타이펙스 한국판 운영
총 960만달러 규모 16건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8일 "농립축산식품부와 지난달 27일~3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5 방콕 식품박람회(THAIFEX 2025)'에 참가해 총 960만달러 규모의 현장 MOU 16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사진> 방콕 식품박람회는 독일 쾰른 식품박람회 주최사인 쾰른메세(Koelnmesse)와 태국 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아시아 식품시장 진출의 핵심 채널이다. 올해 박람회는 일반 식품부터 식품 기자재까지 전 세계 3천231개사가 참가했으며 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적의 바이어와 식품산업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전시장을 가득 메웠다. 농식품부와 aT는 농식품 41개사, 수산식품 8개사, 단감수출통합조직, 인삼수출협의회와 함께 통합한국관을 구성해 떡볶이, 음료, 주류를 비롯해 식사대체식품 등 다양한 K-푸드 제품을 선보이며 총 843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960만



불 규모의 MOU 16건을 성사시켰다. 특히 통합한국관에서는 다양한 메뉴의 조리 시연과 시식 행사를 운영해 현장 방문객들이 K

-푸드의 맛과 품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 인플루언서와 언론, SNS 채널을 활용한 현장 홍보도 병행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한 박람회 참가 국내 기업과의 협업 마케팅도 이어갔으며 국내 종합 식품기업 15개사와 12개 지자체 등 총 220여개사와 공동 제품 전시관과 부스 디자인 등을 협력해 한국 식품산업도 대대적으로 알렸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태국은 식품시장의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식품 교역의 허브로서도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K-푸드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아세안 시장 내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스마트인재개발원, 디지털새싹 사업 2년 연속 선정

5천명 대상 6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인재개발원이 '2025 디지털새싹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8일 "최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5 디지털새싹 사업'에서 전국 규모 새싹 B유형 주관기관으로 2년 연속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디지털새싹 사업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지난해에 이어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 성과와 높은 교육 만족도를 인정받아 올해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현지 교원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 운영과 교원 역량 향상 지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총 6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 프로그램은 ▲우리지역 숲 속, 디지털 지킴이 ▲우리나라 전통ON, AI를 켜다 ▲급식실 데이터분석 과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안태호 기자

LH, 빛가람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용지 5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8일 "최근 전남도 빛가람동 일원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잔여 산학연클러스터용지 5필지(유지업종 : 에너지·농생명)를 일반 실수요자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포함한 정부의 강소연구개발특구 2단계 사업지로 나주시가 지정되면서 친환경 고효율 태양광과 차세대 에

너지저장시스템(ESS) 등 미래 에너지기술의 실증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LH는 이에 맞춰 산학연클러스터용지 5필지를 공급하며 급히 공급하는 토지의 필지당 면적은 1천425㎡~1만6천496㎡, 공급금액은 6억7천510만원~78억1천230만원이고 대금납부조건은 2~3년 분할납부(유이자) 조건이다. /임채만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남도의 산해진미가 가득한
강진오일장터

◎ 장이 서는 날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강진군

광고문의 : 062)650-2099